Glob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Weekly

KMI

지구촌 해양·수산

제 370 호
2007. 5. 22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56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지역포커스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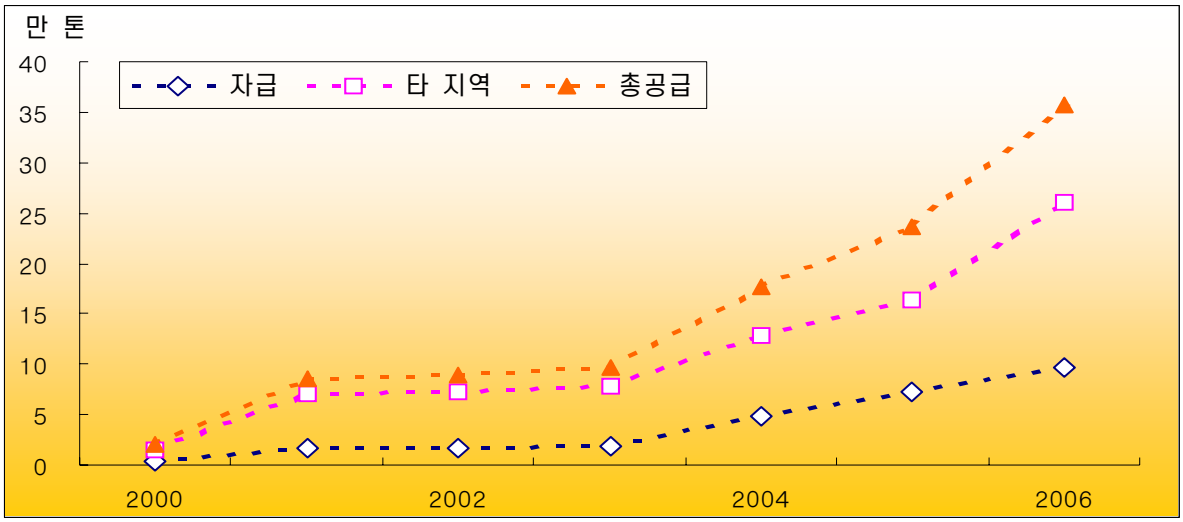
베이징시, 수산물 소비 동향

베이징시, 수산물 시장공급량 증가세로 나타나

○ 베이징(北京)시가 17개의 주요 도매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7개 도매시장의 수산물 공급량이 35만 7,000톤으로 2000년보다 17배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61.8%에 이름

- 수산물 공급량은 2000년도 초반에 증가세가 완만했으나 2003년부터 큰 폭의 성장세로 나타났음

【 베이징시, 17개 주요 수산물도매시장 공급량 추이 】



주 : 중국 농업부 자료

○ 이 중 베이징시의 수산물 공급량은 9만 6,000톤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0배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7.2%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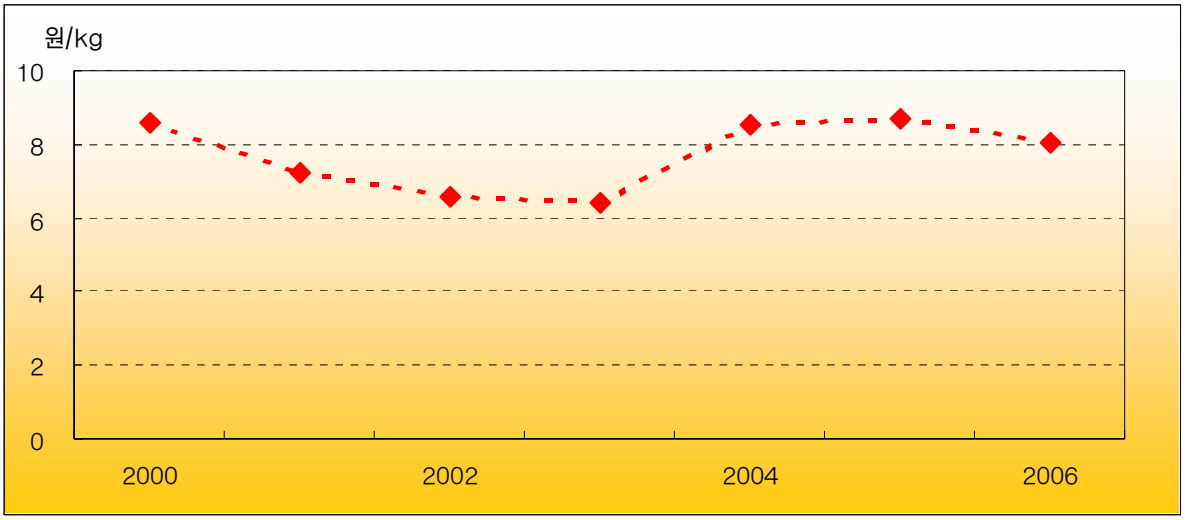
- 그러나 베이징시의 수산물 공급 점유율은 2005년보다 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물 가격, 하락세로 나타나

○ 지난해 베이징시의 수산물 가격은 단위(kg) 당 8.02위안(1,003원)으로 2000년에 비해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 이후 수산물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기록하다가 200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05년에는 단위(kg) 당 8.69위안(1,086원)으로 최고치에 이르렀으나 최근 소폭 하락하였음

【 베이징시, 17개 주요 수산물도매시장 가격 추이 】



주 : 중국 농업부 자료

수산물 소비량, 전년 대비 34.8% 증가

○ 베이징시 농업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시의 수산물 소비량은 약 178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8% 늘어났으며, 이 중 58%가 여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 소비 중 호텔이 30%, 대형할인마트 30%, 음식점 20%, 소매시장이 20%

1) 자급량=생산+수입-수출

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소비 품목은 내수면 수산물로 잉어, 초어, 붕어 등인데, 이 중 약 50%가 톈진(天津) 또는 허베이(河北)산이고

- 해면 수산물은 조기, 갈치, 병어, 오징어 등으로 약 80%가 상하이(上海), 칭다오(淸島), 연타이(煙臺), 다롄(大連), 톈진산임
- 기타 희귀 수산물은 대부분 광둥(廣東), 광시(廣西), 푸젠(福建) 등 지역에서 항공으로 운송되고 있음

○ 베이징시 소비자들은 활어를 선호하는 편인데, 내수면 수산물의 90% 이상이 활어로, 해면 수산물의 80%가 냉동품으로 소비되고 있음

- 고차가공수산물의 시장점유율은 20%에 이르는데, 가격이 비싸고 인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편임

중국, 수산물 소비 지속적으로 늘어날 듯

○ 이처럼 베이징시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도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 패턴은 저가수산물에서 고가수산물로, 내수면 수산물에서 해면 수산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 또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입수산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주요뉴스와 분석

중국, 여가어업 발전 가능성 커

○ 최근 중국 해양경제전문가회의가 푸저우(福州)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중국의 여가어업(유어)을 발전시켜 어촌 잉여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 소득을 높이는 것임

- 푸저우해양경제학회 천웬(陳源)박사에 따르면 여가어업은 향후 중국 어업발전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임

○ 중국의 어업생산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나타났으나, 과도한 어획으로 어업자원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 또한 국제해양법의 실시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이 제한되었으며 양식어업도 환경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해안선이 1만 8,000만 ㎞, 섬이 6,500여 개로 자연적 요건이 우수하여 여가어업 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게다가 주 5일 근무제와 5월과 10월의 황금연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음
- 중국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9,000만 명에 달하는데, 만약 한명이 연간 200위안(2만 5,000원)씩 소비한다면 연간 180억 위안(2조 2,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중국정부는 어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향후 여가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일본,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업 영향 우려

○ 일본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일본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온이 과거 100년간 0.7~1.6도 상승하였고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세계평균의 최대 3배 속도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일본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겨지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향후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수온 상승은 동해 중부, 서해 및 동지나해, 동해~시코쿠(四國) 근해 등의 해역에서 세계 평균의 2배인 1.0도 이상 상승하였고, 반면 도호쿠(東北) 근해 태평양 및 홋카이도(北海道)·쿠시로(釧路) 근해, 동해 북동부에서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어장이 변화하는 등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일본 수산종합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어장의 기후경계가 단숨에 북상하게 되는데

- 게 등 심해 저어류에 대한 영향은 적으나 연안에 생식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이 느린 넙치, 성게, 전복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전갱이, 돔 등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기존의 어장에서는 수온이 낮은 시기 외에는 어업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해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생산량 감소, 적조 조기 발생 등 어업에 있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스웨덴, 수산물 에코라벨링 성공 여부 의구심

○ 스웨덴에서는 에코라벨을 부착한 수산물이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에코라벨을 획득한 수산물의 수가 적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그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총 10개 상품으로, 9개 상품은 연어 훈제 또는 냉동 제품이고, 1개는 청어 제품임

○ 스웨덴 정부는 2001년부터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검사 및 인증 기준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2월 처음으로 가안의 인증 기준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발표 후 30여개 업체만이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관해 의견 제시를 하였을 뿐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등 에코라벨 기준에 대해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음
- 관련 업체에서는 수산물 에코라벨 획득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어선어업의 경우 어장에서 수산물을 어획한 시점부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점까지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 또한 어획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힌 바다새와 바다 생물들에 관한 정보까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향후 스웨덴의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제도의 성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의 사례가 이력추적시스템과도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제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 포커스

중국 위생부, Nassarius thersittes에 대해 식용 금지 발표

○ 5월 초에 베이징시에서 Nassarius thersittes(소라류) 섭취 후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중국 위생부는 Nassarius thersittes에 대해 식용 금지령을 내렸으며

- 더불어 Nassarius thersittes의 주산지인 푸젠, 광둥, 광시 등 지역의 생산, 유통, 가공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전체 소라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시장가격이 급락하였음

- 또한 대부분의 음식점, 호텔에서도 소라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광둥성, 연근해 환경오염 악화로 생태계 파괴

○ 최근에 광둥(廣東)성 해양어업국은 '2006년 광둥성 해양환경질량공보'를 발표하였는데, 공보에는 광둥성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연근해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주장(珠江)하구, 산터우(汕頭) 연근해, 잔쨩(湛江)항 연근해 수역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광둥(廣東)성의 해양 폐기물 배출량은 83억 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1년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임

- 광둥성 해역의 주요 오염물질은 무기암모니아, 인산염, 석유 등이며 일부 해역은 아연, 동,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도 심각함

○ 이처럼 육상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광둥성 연근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생태계 파괴가 가장 심각한 해역은 오염물질 배출구 인근 수역으로, 이 수역에서는 패류가 생존할 수 없으며 생존할 수 있다 해도 식용할 수 없는 상태임

푸젠성, 수산물 약품잔류 불합격율 4.5%로 통제

○ 푸젠(福建)성 해양어업국에 따르면 올해 푸젠성은 수산물의 약품잔류 불합격율을

4.5%로 통제할 예정임

-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30가지 약품의 성분에 대해 분석한 후 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

○ 또한 패류양식에 있어서는 관련 위생기준과 양식수역에 따라 패류양식시범수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둥산(東山)현, 윈샤오(云霄)현, 장푸(漳浦)현에 시범양식할 예정임

일본 수산청, 어업재도전지원사업 시작

○ 수산청의 어업재도전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한 가운데 '어업 담당자 확보'와 신규사업인 '어업분야에 대한 신규참입 확보'의 2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 '어업 담당자 확보'(2억 7천 5백만 엔)의 경우 종래의 '신규취업자 확보·육성지원사업'에 더해 어업취업지원박람회 개최 전 '취업준비 강습'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사업내용을 확충하였으며
- 신규사업인 '어업분야에 대한 신규참입 확보'(2억 8천만 엔)의 경우 '커리어 활용형 재도전 계획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 수산청은 사업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자 올 4월에 '전국어업취업자 확보 육성센터'를 새롭게 조직하고 '어업으로 기회를 잡자!'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 홈페이지, 전국 통일 로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협계통, 행정 등을 통해 선전하기로 함

나가사키현 수산관련단체, 수산물 수출 연대 모색

○ 나가사키현(長崎縣) 기타마쯔(北松)지역 수출입촉진협회의 등 나가사키현 내 수산관련단체가 지역수산물 수출전략회의 모임을 개최하였음

- 기존에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추진해왔으나 향후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지자체가 모임을 주도적으로 개최한 것임

○ 이 모임은 6월부터 각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수출수산물 및 수출지역, 공항, 운송 가격 등을 조사·검증한 뒤 10월까지는 수산물 수출전략 보고서를 종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간추린 지구촌 소식

베트남, 수산관련 대규모 행사 개최 예정

○ 베트남 메기(catfish)산업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개최할 2007 베트남 수산 국제 박람회(VIETFISH 2007)와 함께 처음으로 메기 관련 국제회의를 준비 중에 있음

- 메기 산업은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이며 4개월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말까지 36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베트남 메기산업 관계자들은 회의와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수산물 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더욱이 이러한 행사가 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양식어업 발전 도모

○ 말레이시아는 양식어업 발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식어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 현재 말레이시아 양식 업계는 각종 수산물과 타이거 새우를 미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양식 발전이 필수적임

인도네시아 어업인, 연료비 상승에 따른 애로 직면

○ 롬복(Lombok)시의 어민들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5일간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연료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어업인들이 연료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짐

-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발리(Bali)에서 1,600톤의 연료가 수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예상함

브라질, 스페인과 양식기술협력 체결

○ 스페인 국제협력국(Agen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대표단은 5월 17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브라질 알라고라스 주를 방문해 양식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 스페인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알라고라스 주 어업인들에게 양식 생산 기술 및 가공 기술을 이전할 계획임
- 특히 스페인은 틸라피아의 필렛 생산 및 어류 껍질 가공기술을 이전하여 브라질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그린피스, 참다랑어 어업 금지 요청

○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중해 해역의 참다랑어 자원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있음을 알리면서 참다랑어 어업을 즉각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음

-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중해 지역에서 참다랑어의 한해 최대어획 가능수준을 15,000톤으로 보고 있지만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는 올해 29,500톤을 할당해 참다랑어 자원고갈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함

미국, 연어회귀프로그램 개발로 연어자원관리

○ 미국 오리곤 주 중앙 해역에서 연어 회귀경로를 지도화하는 2차 시범 연구가 5월부터 시작되며 이를 오리곤 전 해역과 캘리포니아 북부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오리곤주립대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어 회귀경로를 파악하여 연어 자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